

‘가을 ON 순간’ 물드는 음악... 낭만을 더하다

제3회
광산뮤직ON
페스티벌
3rd GWANGSAN MUSIC ON FESTIVAL



글렌체크

20~21일 광산구 황룡친수공원 일원
크라잉넛·글렌체크·10CM 등 출연
공군 특수비행 ‘블랙이글스’ 에어쇼
일회용 없는 축제 친환경 가치 공유
특별한 추억과 일상의 위로 되길...

10CM, 크라잉넛, 글렌체크, 행주, 유다빈밴드
...

가을이 깊어가는 9월, 인디·록·일렉트로니카가 씬
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들이 광주로 집결한다.

‘제3회 광산 뮤직ON페스티벌’이 오는 20일부터
21일까지 이틀간 광산구 황룡친수공원 일대에서
펼쳐진다. 이번 축제의 주제는 ‘가을 ON 순간’. 인
기 아티스트들의 신나는 무대와 다채로운 프로그
램들로 시민과 지역이 함께하는 감성 축제로 펼쳐
진다.

우선 축제의 첫날인 20일 무대의 중심은
‘말달리자’로 잘 알려진 펑크 록 밴드 크라
잉넛이다. 1993년 결성 이후 ‘한국 인디
록의 살아있는 역사’로 불리는 이들은 변
함없는 에너지와 거침없는 무대 매너로
세대를 넘어 사랑받아왔다. 펑크의 날카
로운 속에 유머와 일상의 풍경을 담아내
는 그들의 노래는 축제 현장에서 관객과
함께 호흡하며 폭발적인 에너지를 선사할
것으로 기대된다.

독창적인 음악 세계로 주목받은 글렌체크
(Glen Check)도 첫날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.
신스팝과 일렉트로니카, 록과 재즈를 넘나드는 실
험적 사운드를 구축해온 이들은 국내외 무대에서
탄탄한 팬층을 형성했다. 특히 화려한 시각 연출과
함께하는 몰입감 높은 라이브 퍼포먼스는 광주 관
객들에게도 새로운 경험을 안겨줄 전망이다. 이 밖
에도 유니크한 밴드 카디(Kardi), 감성적인 보컬
의 우디(Woody), 섬세한 음색의 싱어송라이터 황
가람 등이 가을밤 무대를 채운다.

둘째 날 무대 역시 다채로운 뮤지션들을 만날 수
있다. 무엇보다 어쿠스틱 감성의 대명사 십센치
(10CM)가 무대에 오른다. ‘스토커’, ‘사랑은 은하
수 다방에서’, ‘아메리카노’ 등 대표곡으로 꾸준히
사랑받아온 이들은 소박하면서도 진솔한 노랫말과
담백한 사운드로 가을 감성을 자극한다. 이어 그룹
에이트 출신 이현이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무대를
달구고, 래퍼 행주와 일렉트로닉 아
티스트 DJ 아스터가 리드미
컬한 공연으로 열기를 더한

다. 인디 신에서 주목받는 유다빈밴드는 밴드 사운
드의 매력을 더하며 가을밤 피날레를 장식한다. 공
연 티켓은 일자별로 1800매가 배정되며, 티켓링크
예매(1500매)와 현장 발매(300매)를 통해 선착순
배부된다.

축제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는 공군 특수비행팀
블랙이글스의 에어쇼다. 21일 오후 4시 30분 펼쳐
질 이번 공연에서는 국산 초음속 항공기 T-50B 8
대 편대가 다양한 곡예비행을 선보이며 땅 위의 음
악과 하늘 위의 비행이 어우러지는 이색적인 장관
을 연출한다.

이번 축제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시민이 주인공
이 되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채워진다. ‘시민공연
한마당’과 ‘릴레이 버스킹’에서는 지역 동호회와
청년 예술인들이 끼를 펼치고, ‘코스모스 라운지’
와 ‘북크닉(Book+Picnic)’은 가을 정취 속에서
휴식을 제공한다. 해가 지면 ‘별빛 영화관’이 열리
고, 누구나 건반을 두드릴 수 있는 ‘거리 피아노’가
낭만을 더한다. 특히 거리에서 시민과 함께 노래
를 부르는 ‘거리 노래방’ 콘텐츠로 유명한 유
튜버 장현이 참여해 공원을 거대한 노래방
으로 바꾸며 특별한 추억을 선사한다.

광산구는 이번 축제를 ‘지속가능한 모
델’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도 밝혔다. 다
회용기 사용, 스마트 음수대 설치 등을 통해
‘일회용품 없는 축제’를 지향하고, 친환경 가
치를 공유하는 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.
광산구 관광육성과 전동익의 주무관은 “시민이 직
접 무대에 서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
준비했다”며 “이번 축제가 특별한 추억이자 일상의
위로가 되기를 바란다”고 전했다.

/장혜원 기자 hey1@kwangju.co.kr



10CM

‘제3회 광산 뮤직ON페스티벌’이 광산구 황룡친수공원에서 오는 20~21
일 펼쳐진다. 사진은 크라잉넛. <광산구 제공>



거리 위 춤추는 청춘, 스트릿댄스로 도심이 흔들린다

광주문화재단, 13일 광주공원

도심 한복판이 무대로 변한다. 자유롭고 역동적
인 스트릿댄스가 도심 무대를 수놓으며 청춘의 열
정이 시민들과 만난다.

광주문화재단은 오는 13일 오후 4시 30분 광주
공원 청춘빛포차광장에서 ‘주말은 청춘-스트릿댄
스’를 연다. 2025 청춘문화누리터 사업의 일환으로
마련된 이번 무대는 청년이 주체가 되어 거리문화
를 만들어가는 실험장이자 축제의 장으로 기획됐
다.

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스트릿댄스 1대1 배틀이
다. 힙합과 하우스 장르의 프리스타일 형식으로 진
행되며, 예선을 통과한 16명의 댄서가 토너먼트로
우승자를 가린다. 서울, 부산, 대전 등 전국 각지
에서 모인 댄서들이 저마다의 개성과 기량을 뽐내
며 치열한 경쟁과 교류를 펼치게 된다. 시민들은 도심
한복판에서 즉흥적이면서도 완성도 높은 무대를 가
까이에서 즐길 수 있다.

배틀만큼 주목되는 무대는 초청 공연과 심사위원
쇼케이스다. 파주 댄스팀 ‘SIKGU’가 무대를 꾸미
고, JAE-SANG·NEOH·5000 등 국내 정상급 댄
서 6인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다. 이들은 단순히
평가에 그치지 않고 직접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현
장의 열기를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.

부대 프로그램도 마련됐다. 댄스 워크숍과 영상



지난해 ‘주말은 청춘-스트릿댄스’ 공연 모습.

<광주문화재단 제공>

촬영이 준비돼 시민 누구나 무대 위 댄서가 되어보
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.

한편 광주문화재단은 지난 6일 ‘코스튬플레이’
행사에 이어 이번 ‘스트릿댄스’까지 다양한 인디문
화와 청년 예술인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무대
를 이어가고 있다.

노회용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는 “청년들의 자
유로운 에너지와 창의성이 도시를 가득 채우길 기
대한다”며 “앞으로도 청춘빛포차광장을 중심으로
청년이 주체가 되는 거리문화를 뿌리내려 도시에
활력을 불어넣겠다”고 말했다.

/장혜원 기자 hey1@kwangju.co.kr

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

김소연 시인 세번째 시집 ‘어둠을 밝히는 그대’ 펴내

지난해 제20회 풀잎문학상 수상 시집 ‘내 인생
의 보석상자’를 펴낸 김소연 시인이 세 번째 시집
‘어둠을 밝히는 그대’를 펴냈다.

‘어둠을 밝히는 그대’는 장애인들과 함께 껏
하게 살아가 수 있는 세상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
로 쓴 시집이다.

그는 어렸을 때 뜻하지 않은 사고로 머리를 다
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. 그러나 교회 목사님의
위로와 관심에 용기를 얻었고 새로운 삶을 살게
되었다. 이후 틈틈이 시를 써서 몇 군데 공모전에
투고를 했다. 그러다 월간 ‘시사문단’을 통해 등단
을 했으며 이번에 세 번째 작품집을 발간하게 된
것이다.

김 시인은 “오늘날 장애인 뿐만 아니라 힘들고
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무수히 많은 이들에게 이
번 시집이 작으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
에서 작품집을 펴냈다”고 전했다.

한편 시집 출간을 기념하는 출판기념회가 오는



13일 오후 5시 북구 동림동 바른민물장어에서 열
린다.

김 시인은 지금까지 시집 ‘희망의 속삭임’, ‘내
인생의 보석상자’를 펴냈으며 빈여백 동인으로
활동하고 있다.

/박성천 기자 skypark@kwangju.co.kr

광주일보 73년 - 유튜브 3천만뷰 돌파



KSA 한국표준협회
KOREAN STANDARDS ASSOCIATION

ISO 21388
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



국 제 보 청 기

“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”

- ✓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.
- ✓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.
- ✓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.

본점	서석동 남동성당 옆	062) 227-9940
		062) 227-9970
서울점	종로 5가역 1층	02) 765-9940
순천점	중앙시장 앞	061) 752-9940